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 (5) (5/7/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3 장 “진리의 교훈” 3-4 절

마 5:8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딤후 2:22 -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벧전 2:11 -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3. 마음이 단순해질수록, 사람은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들과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명철의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순전하고 단순하며 견고해서, 많은 일을 하여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전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무엇보다도 더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죽지 않고 펄펄 살아 있는 육정이 아닙니까? 선하고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앞서 그 마음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악한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모든 일을 올바른 이성의 판단에 따라 행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보다 더 치열하고 힘든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고, 날마다 더 강해지며,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말씀과 해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마 5:8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시 18:26 -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마음이 단순한 것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생각, 염려, 근심, 왜곡된 의도 등으로 인해 마음이 혼잡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며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봄으로 마음에 영적인 군더더기가 없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눅 10:39 -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러한 사람은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한다. **딤후 2:22 -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성도는 많은 것들 중에,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이끌어가면서 괴롭게 하는 육신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벧전 2:11 -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도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된 본성을 지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4. 현세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부분을 아울러 지니고 있고, 그것들을 관찰하고 사고하는 우리의 모든 능력에도 일정 정도 결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심오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확실한 길입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식을 나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언제나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선한 양심과 선한 삶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행하여 선한 열매를 전혀 또는 거의 맺지 못하는 이유는, 선한 삶을 사는 것보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해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완전한 것은 없으며 우리 자신 역시 사고의 능력을 포함하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고 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심을 믿으면서 스스로 낮아지며 겸손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선포한다. 시 50:1 -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울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분이라고 선포한다. 히 7:28 -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식의 좋은 점과 유익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선한 삶을 잊어서는 안된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선한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름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벰전 3:16 -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익한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그것들을 담는 깊은 믿음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주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가득한 마음이며, 그 마음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주님을 향한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2. 무엇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코비드 19 으로 인해 여전히 큰 고통 속에 있는 인도를 비롯한 어려운 지역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